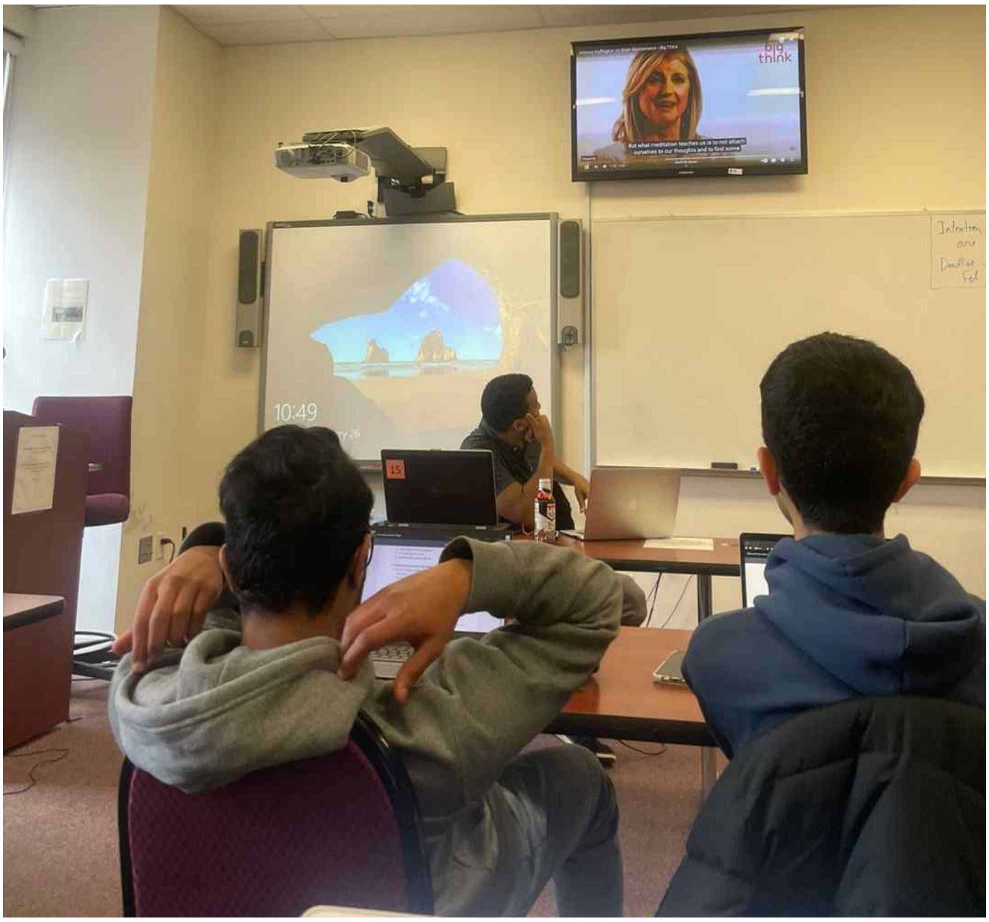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소속					
성명		학번		연락처	
참가 프로그램	2022 동계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기간	2023.01.02. - 2023. 01. 28				

1. 외국에서의 학습 및 체험 활동 내용(교육과정 위주로 기술)

델라웨어 대학교의 ELI 프로그램은 8:15~10:05 LS (Listening and Speaking) 수업과 10:35~12:35 WR (Writing and reading)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주 학교에서 ELI 이벤트가 열렸고, 학생들은 그 활동에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 한국에서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보카/문법/리딩/라이팅/스피킹 등 각자의 영어 실력이 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정도가 되는지를 측정하는 자세한 시험이었습니다. 레벨은 1~6까지 있었고, 레벨마다 수업의 접근방식과 깊이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레벨마다 열리는 수업도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General, business English 수업은 모든 레벨이 열렸고, 레벨 4-6은 더욱 전문적인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열렸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받을 때 선호하는 수업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영어영문학과라 read it, watch it 이라는 수업을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을 들어보니 제 전공 수업과 너무 유사했고, ELI 상담 선생님께 문의와 상담 요청을 드렸더니 친절하게 제 고민을 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ELI 선생님은 저희에게 친절하셨고, 저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자 하며 저희가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기회를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수월하게 저에게 더 걸맞는 수업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레벨이나 수업이 맞지 않는다면 나름의 정정기간처럼 첫째 주에 상담 후 레벨 재측정 또는 문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레벨 5였고, LS 시간에는 기본적인 vowel sound와 같은 영어권 나라의 발음 구조를 배웠습니다. 세계 도시의 구조적 변화, 저명한 화가의 일생기 등을 비디오 파일로 듣고 반 친구들과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 LS 담당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하시고, 스피킹의 기회를 모두에게 주려고 하셔 좋았습니다.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도 했는데 똑같은 문제여도 각 나라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진 문화마다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던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WR 수업에서는 문법과 리딩 그리고 라이팅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라이팅은 교재 속 지문을 읽고 요약하는 summary 형식이었습니다. 제 WR 담당 선생님께서는 지루할 수 있는 수업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려고 항상 노력하셨습니다. 특히나 이 수업의 문법은 정말 현지인들의 문법이었고, 한국에서 입시를 위해 배운 영어 문법 공식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어학연수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WR 클래스에는 한국인들과 오만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해 주셨고 영어 뿐만이 아니라 어학

연수의 장점까지 같이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 WR 수업 시간

매주 열린 ELI 이벤트는 튜터링, 농구 수업, 북클럽, 기타 클럽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는 UD 학생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매일 튜터링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고, 쿠키 아이싱 데코레이션 등 학교 프로그램 참여만 해도 즐겁게 구성됐습니다.

▲ UD 농구 경기 단체 관람

2. 참가 성과

한 달 동안 영어를 써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입에 붙었다는 것은 좋은 성과입니다. 전공이 영어라서 수업이 힘들거나 영어가 어색하진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배우지 못할 현지인들만의 영어를 배웠다는 것이 어학연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절대 쉽게 경험하지 못할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같은 문장 하나를 봐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떠오르는 것이 다르다 보니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 소요경비

프로그램 비용과 홈스테이 비용, 공항 픽업 비용을 포함하여 약 500만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프로그램비에는 학교에서 열리는 이벤트 (워싱턴 여행 등)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홈스테이를 이용하게 되면 저녁 식사, 그리고 학교까지 등학교 픽업을 해 주십니다. 항공비는 어딜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필라델피아 공항까지 가는 직항이 없어 미국 내에서 경유를 했어야 했고, 환율이 가장 비쌀 때였으며 연초라 항공비가 가장 오를 때라 아주 비싼 가격에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픽업 시간 때문에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항공권 선택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왕복 360~410만원 정도에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추천하는 대학 보험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가장 좋은 여행자 보험으로 8만원 정도를 지불했고, eSIM을 사용하여 매일 2기가 데이터가 들어오고 미국 번호가 없는 조건으로 9만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미국 번호를 쓸 수 있다면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쓰는 개인 경비를 제외하고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데에 약 1000만원 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환율이 너무 오를 때였고 가격 변동이 심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뉴욕 당일치기 (기차 이용), 필라델피아 당일치기 (기차 이용), 플로리다 당일치기 (비행기 이용 - 미국은 국제선이 한국에 비해 저렴합니다!) 여행을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여행 경비라는 것이 어딜 가고, 가서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쇼핑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플로리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은 점심, 간식까지 포함해 약 20-25달러 정도를 매일 썼던 것 같습니다.

4. 본 프로그램 참가 후 느낀 점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영어는 필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온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며 영어는 필수가 아닌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도 체감했지만 그것보단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더 성장하는지,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더 커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저에게는 큰 자극점이 됐습니다. 지구는 크고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양하며 전부 각자의 문화에 있어 당당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알았습니다.

5. 향후 학업 및 진로 계획

1) 학업계획

영어교육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입니다. 그 계획에 맞춰 공부할 계획이고, 특히나 이번 어학여수가 저에게는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하게 해 준 것 같아 뜻깊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영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현지인들의 언어를 너무 공식화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영어가 언어로서 학생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2) 진로계획

영어 강사로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강단에 서서 강의를 진행하는 게 즐겁고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고 느껴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활동도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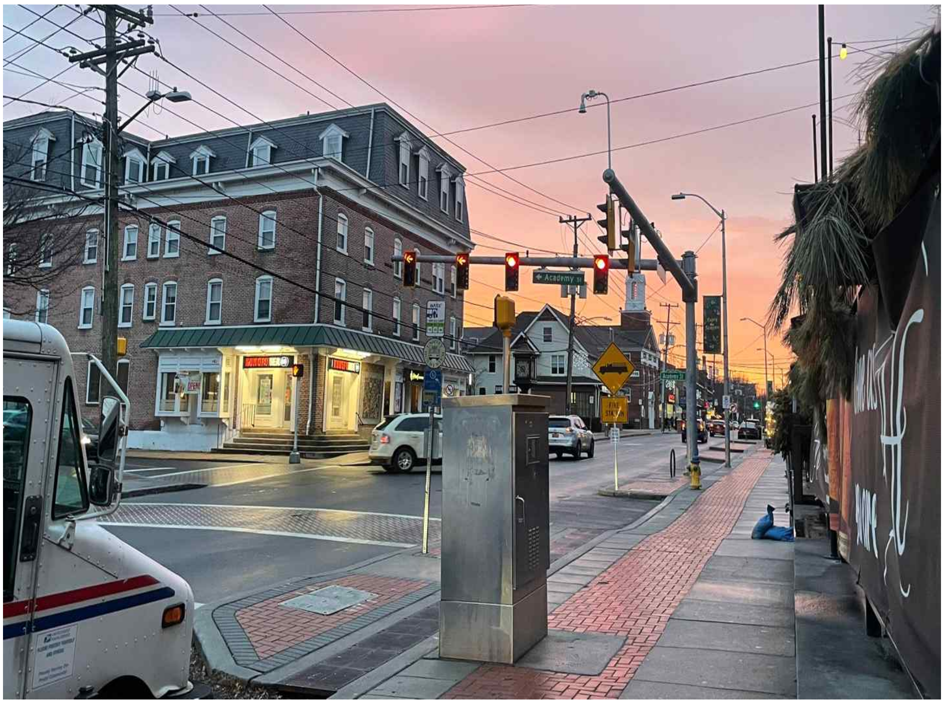
6. 향후 참가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제가 지낸 델라웨어라는 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국의 대도시가 아닙니다. 사는 지역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하고 가면 경비와 여행하는 데에 있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뉴욕과 같은 마약이 합법인 곳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약에 취한 사람이 길거리에 있고 대마 냄새가 흔하게 나요. 미국에서는 따로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편하긴 했지만 재활용을 습관처럼 하는 한국과는 달라 마음에 조금 걸렸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외국에서 하나은행의 트래블로그나 트래블 월렛 카드를 이용하곤 합니다. 미국에는 팁 문화가 있는데 팁은 식당에서 저희의 결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은행에 지불을 요청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트래블로그를 사용하시면 나중에 원화로 팁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마다 달라요. 며칠 후 카드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원화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팁이 바로 결제되지 않는 건 똑같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수중에서 컨트롤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금으로 팁을 주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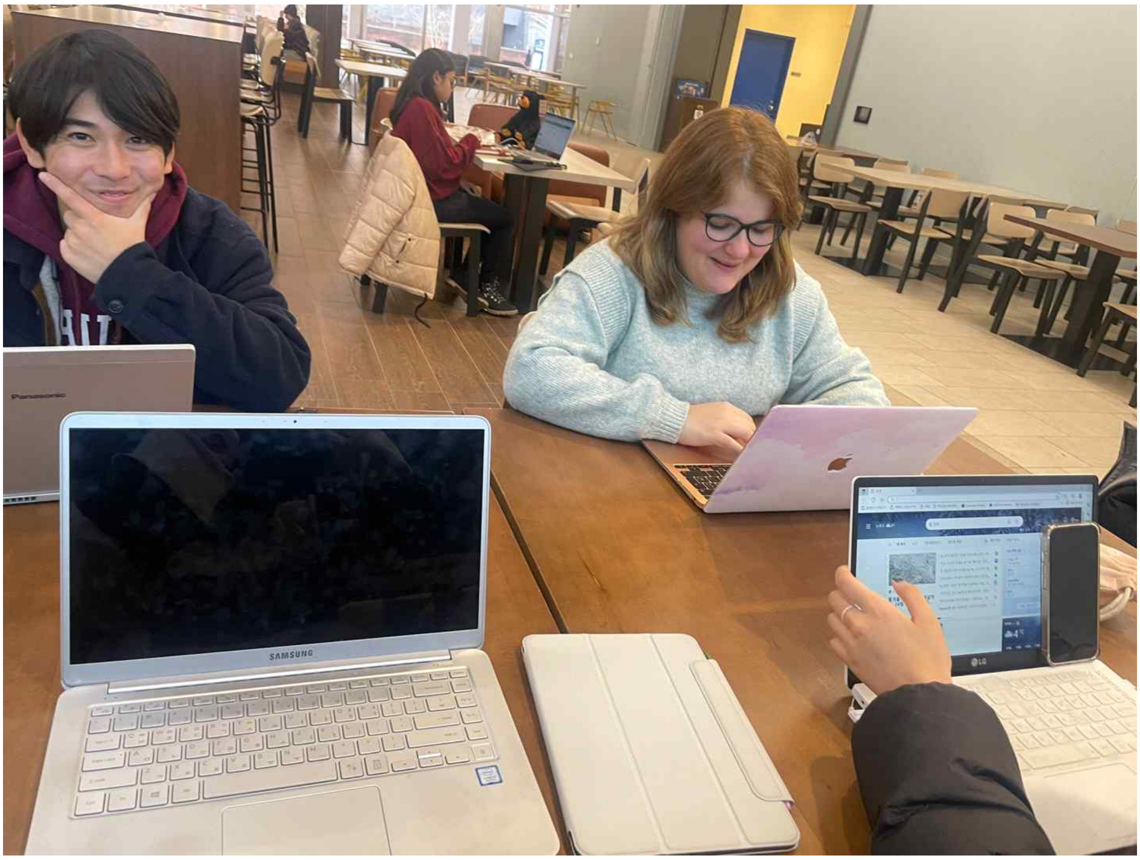
8. 활동사진(2장 이상)

▲ 홈스테이 집 앞 풍경/ 홈스테이를 하게 되면 한국과는 달리 차가 없으면 집이 있는 단지 밖으로 나오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홈스테이 호스트와 픽업 시간을 조정해서 충분히 학교 생활을 즐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ELI main street 저녁 풍경// ELI 건물들은 main street에 모여 있어요. 이 길거리는 식당, 카페, 서점 등 놀거리가 많아 좋았습니다. 학교 기념품을 파는 상점도 있고, 친구들 선물을 사기 좋은 샵도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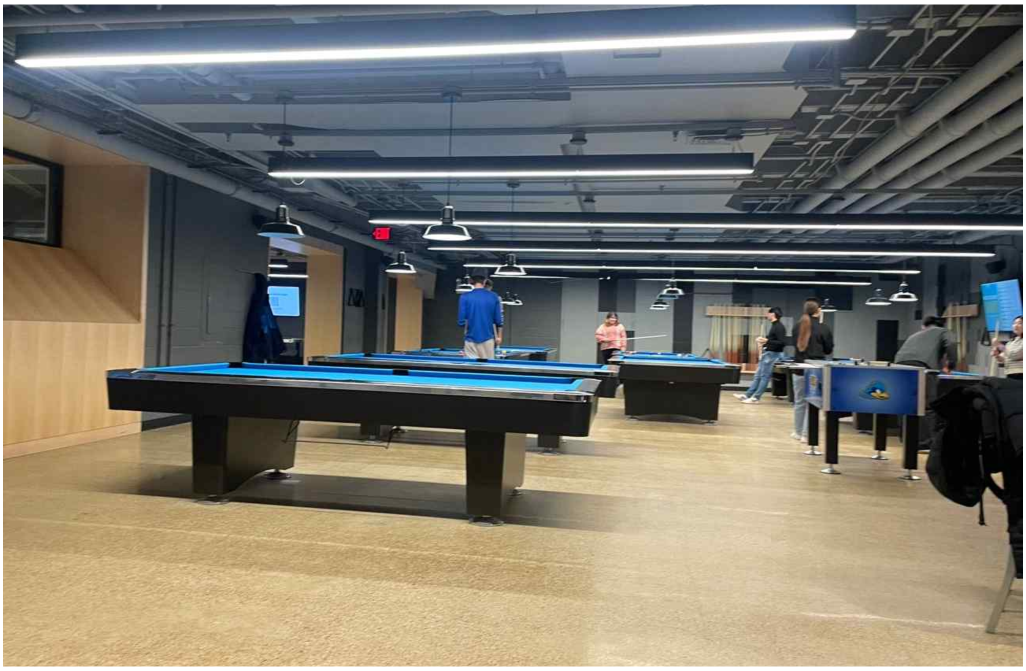
▲ 홈스테이 저녁// 저녁을 홈스테이에서 제공해 줘서 좋았어요. 호스트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한국 학생이 머무르니 쌀로 밥도 해 주시고 항상 저희의 저녁을 신경 써 주셨어요. 덕분에 항상 너무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침은 차려 주진 않으셨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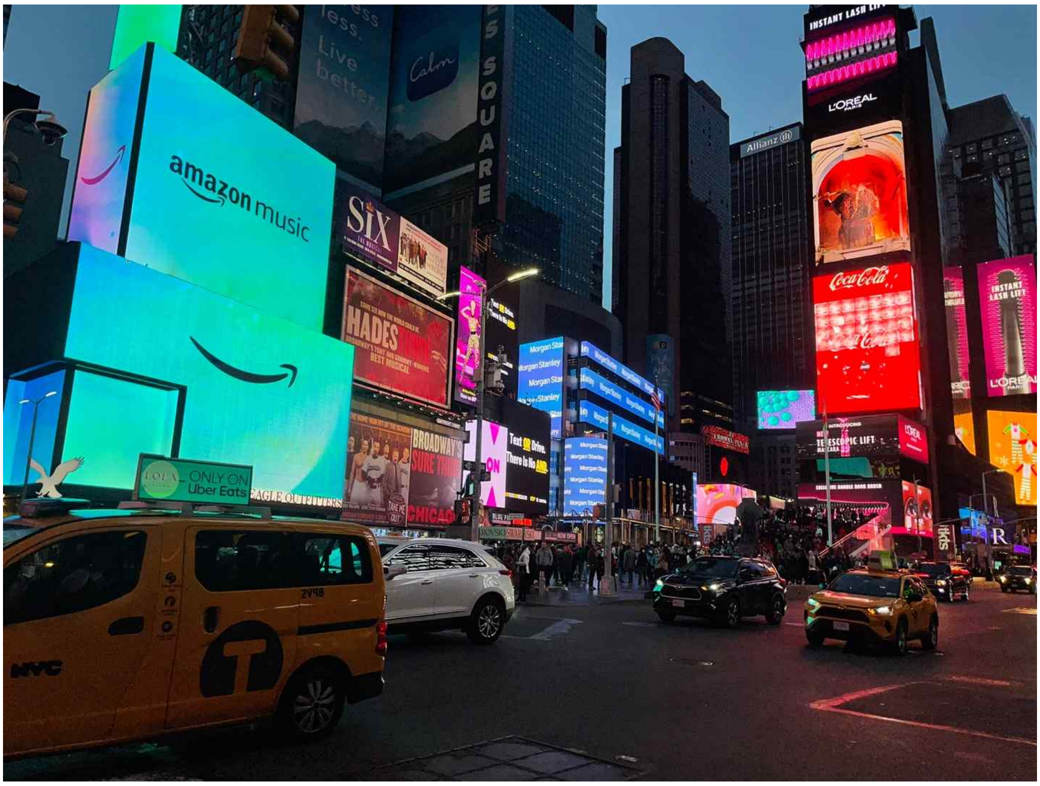
▲ 일본인 친구 Ryoya와 스페인 친구 Bea와 Perkins student center에서 공부//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면 영어가 느는 것은 물론 그 나라 문화도 배울 수 있어 좋았어요. 아시아권 친구들이 의외로 한국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아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일본인 친구 Ryoya와는 대화할 때 일본어, 한국어, 영어를 섞어서 쓰는 글로벌한 경험도 했어요!

▲ 중동 오만 친구들의 젓가락질 배우기// 저의 WR 수업을 같이 들었던 오만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같이 일식당에 갔었는데 오만은 젓가락을 쓰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 이날 저희 한국인 친구에게 처음 배웠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희가 엔딩 세레모니를 할 때도 축하한다며 작별 인사를 해 주러 온 보고 싶고 그리운 귀한 친구들이에요.

▲ 한국 문화 소개해 주기// ELI 빌딩 Amstel 근처에는 한국 치킨 비비큐가 있었어요. 외국 치킨과는 다르게 한국처럼 다양한 맛이 있고 떡볶이와 김치 볶음밥도 팔고 있어요.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날은 떡볶이와 한국 치킨을 소개해 줬습니다. 스페인 친구는 떡 자체를 처음 봐서 신기해했고 매워서 잘 먹지 못했지만 오만 친구와 일본인 친구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너무 맛있어서 또 먹으러 갔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 줄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맛은 한국이랑 정말 똑같았어요!



▲ Hen zone in Perkins student center// ELI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헨존이었어요. 플레이 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당구대, 탁구대, 에어 하키 등 학생들이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당일치기 뉴욕 야경// 뉴욕은 꿈과 같은 도시였어요. 화려하고, 북적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로망으로 남을만큼 아름다운 곳이에요. 브로드웨이에서 본 알라딘 뮤지

컬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멋있었어요.

▲ 당일치기 필라델피아 시청// 필라델피아는 모든 건물이 유럽처럼 고풍지고 예뻤어요. 미술관이 많고 벽화 거리, 리딩 터미널 마켓 등 필라델피아를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